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다양한 의미와 21세기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새로운 복원을 위한 우리의 과제

소기천*

1. 서론

신약성서를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문제가 텍스트스 레캡투스이다. 이 논문은 원래 신약성서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지만 원본은 사라지고 수많은 사본들이 전해지는 동안에 신약성서27권이 4세기에 이르러서 경전으로 채택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의미가 여러 정황에 의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는 사실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은 신약성서 경전 형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도성’의 개념과 더불어 ‘유대성’의 개념에서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의미가 발견되는지를 연구하여 장차 한국교회가 그리스어 신약성서에 대해 새롭게 가져야 할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과거에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필사가들에 의해 베껴져서 몇몇 사본으로 전해지던 제한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출판업자들에 의하여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한꺼번에 다량으로 반포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상업적인 광고의 의미로 전락된 측면을 비판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의미가 학자들이 학문적 노력에 의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복원해 놓은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공신력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면서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한국교회가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론인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상호본문성에 입각하여 ‘선택과 결정’이라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향후 21세기 그리스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eece)의 새로운 판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본으로 한 새로운 우리말 신약성서의 번역본을 출판해야 할 필요성까지 제기하고자 한다.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2. 사도성과 유대성

신약성서가 경전으로 채택되기 위하여 27권의 목록이 최종적으로 등장한 것은 367년의 일인데,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 신약성서 27권의 목록에 대하여 ‘구원의 근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경전으로 포함시켰다.¹⁾ 여기서 우리는 신약성서가 구원의 근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최종 평가를 받기까지 사실상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있어서 27권의 책들은 다양한 정경 선택의 기준들에 입각하여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곧 다양한 정경 선택의 기준들이란 수 세기에 걸쳐서 신앙 공동체에 의해 사용된 증거가 뚜렷하고, 초기 교부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용되고, 사도들에 의해 쓰여지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조인 초기 그리스도인의 신앙 규범 (*regula fidei*)에 의해 인정을 받는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말한다.²⁾ 이렇게 정경 선택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우리는 초기 교회에서 어느 한 순간에 일시적으로 정경의 형성과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의 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경 형성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처음 300년 동안의 삶과 동일한 기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교회 회의나 감독 회의에서 규범적인 책들을 결정하여 그 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도록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최종적으로 정경에 포함된 책들은 수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예배와 가르침에서 그 책들을 사용했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하고 바로잡는 데서 그 책들이 드러내었던 능력을 존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경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수 세기 동안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경험과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다.³⁾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가 신약성서를 줄기차게 사용함으로써 4세기에 이르러서 자연스럽게 경전이 채택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적 가르침 곧 ‘사도성’⁴⁾이다. 왜냐하면 신약성서가

1) P. J. Achtemeier, J. B. Green, and M. M. Thompson, 『현대적인 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신약성서 개론』, 소기천, 윤철원, 이달 번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Introducing the New Testament: Its Literature and Theology*, 726.

2) *Ibid.*, 726-731.

3) *Ibid.*, 731.

‘사도적 저작성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정경을 결정한 것’)은 아주 주요한 사실이
기 때문이다. 비록 사도적 저작성이 정경 형성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었고 어떤
신약성서의 책들에서는 사도적 기원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초기 교
회의 정경 형성에 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주는 영향력은 참으로 지대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초기 교회에서 신약성서 경전 형성을 위해 ‘사도
성’은 텍스투스 레캡투스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소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러한 사도성의 중요성 때문에 신약성서의 책들은 사도들의 이름으로 붙여지
게 된 것이다. 곧 당시에 신약성서의 정경 목록에서 제외된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지혜서, 헤르마스의 목자, 시락서,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클레멘트 서
신 등도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많이 읽힌 책들이지만 사도성의 원리를 충족시키
지 못하였기에 신약성서의 정경 형성 단계에서 텍스투스 레캡투스로 인정을 받
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도성을 충족시키는 책들 중에서 베드로복음서, 빌립복음서, 사도 바
울의 기도, 야고보의 묵시록, 베드로묵시록, 베드로행전, 빌립에게 보낸 베드로
의 편지, 마리아복음서, 요한의 비사 등은 왜 신약성서의 정경 목록에 오르지 못
한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1945년에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된 나그
함마디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나그 함마디 문서는 20세기 고고학적 발굴에 있
어서 사해 문서와 더불어서 성서고고학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비록 나그 함마디
문서가 ‘역사적 예수 연구의 판도라 상자’)로 불릴 만큼 오늘날도 여전히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서 자체는 그리스어가 아닌 콥트어로
기록이 되었으며 185년경에 오리게누스와 테르툴리아누스와 이레네우스와 같
은 교부들에 의해 영지주의 이단 문서’)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비록 사도들의
이름이 붙여진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서의 경전에 들지 못하였다.

-
- 4) 슈틀마허는 초기교회의 정경선택의 기준으로 ‘신앙의 규범’과 ‘사도성’을 중시하였다. 참고, P. Stuhlmacher, 『신약성서 해석학』, 전경연, 강한표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38, 41; *Vom Verstehen des Neuen Testaments: Eine Hermeneutik*.
- 5) P. J. Achtemeier, J. B. Green, and M. M. Thompson, 『현대적인 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신약성서 개론』, 729.
- 6) J. M. Robinson, “The Study of the Historical Jesus after Nag Hammadi”, *Semeia* 44 (1988), 48.
- 7) 나그 함마디 문서 중에서 도마 복음서는 과거에 1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할 때 영지주의 문서로 취급하였지만, 오늘날은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상황인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도마복음서를 영지주의 이단 문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소기천, 『예수말씀의 전승 궤도』(서울: 대한기독교교회, 2000), 141; R. M. Grant and D. N. Freedman, 『예수말씀 복음서 Q 연구 개론: 잃어버린 지혜문학 장르의 전승 자료』, 소기천 역(서울: 대한기독교교회, 2004), 179-184; *The Secret Sayings of Jesus* (Garden City: Doubleday, 1960), 71; G. C. Quispel, *Makarius: das Thomasevangelium, und das Lied von der Perle* (Leiden: E. J. Brill, 1967), 7-8.

여기서 우리는 신약성서의 정경 기준이었던 사도성 이외에 또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가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유대성’이라는 요소이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신약성서를 경전으로 간직하기 이전에 구약성서를 정경으로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에 반기를 든 사람은 2세기에 에테사의 마르시온이었다. 그는 구약성서를 열등하다고 생각하여 완전히 배격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영적인 지식만을 최고로 간주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대표하는 견해였기에, 초기 그리스도교는 구약성서와 초기 유대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성에 입각하여 영지주의를 초기 교회의 이단으로 강력하게 규정하여 제거하였다.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의 무대 전면에서 사라진 영지주의 이단은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나그 함마디 문서를 통하여 전해진 것과 같은 문서들을 만들어 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구약성서와 초기 유대교의 전통 위에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성서의 정경 형성 단계에서 텍스투스 레캡투스에 들지 못하였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텍스투스 레캡투스를 결정하는 데 유대성이 지니는 중요성은 다음의 글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이 1세기에 일어났을 때,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일종의 ‘성서를 위한 전쟁’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교회가 고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존재하면서,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와는 반대되는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의 경전과 같은 본문을 읽었던 상황에서 교회는 정체성을 세워야 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스라엘의 경전을 해석할 때 그 초점은 고대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에 접근하는 길을 찾았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목적들과의 연속성에 접근하는 길을 찾는 데 맞추어졌다.⁸⁾

비록 이러한 설명에 ‘유대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구약성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서문이고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점에서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스라엘의 경전을 구약성서의 가르침에 입각한 유대성의 기준으로서 신약성서의 경전화 과정에서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근거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텍스트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유대인이었다. 예수께서는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기도하고 설교하셨다. 부활절 이후에 초기 그리스

8) P. J. Achtemeier, J. B. Green, and M. M. Thompson, 『현대적인 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신약성서 개론』, 28.

도인들도 이러한 예수를 본받아서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들인지라 회당에 소속감을 가졌기 때문이다⁹⁾ 예수께서는 유대적 전통에 충실하셨고 어떤 점에서는 종교적일 정도로 열심이셨다¹⁰⁾ 이 점에서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를 놓으신 예수의 유대적 특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적 신앙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을 분열시킨 요소가 율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 기인된 것이지만¹¹⁾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성을 예수의 유대적 가르침에서 재발견하였다¹²⁾ 그러나 예수의 역사적 모습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분명한 연관성(continuum) 속에 있지만, 그것은 연속성과 동시에 불연속성을 의미하기도 한다³⁾ 곧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다른 하나는 예수 시대에” 각각의 기초를 놓게 됨으로써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유대교가 ‘어머니’ 종교이며, 기독교가 ‘딸’의 종교”라는 사실에 동의한다¹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가운데 갈릴리를

9) B. J. Lee, *The Galilean Jewishness of Jesus: Retrieving the Jewish Origins of Christianity* (New York: Paulist Press, 1988), 17. 유대교 회당이 언제 기원하였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탈무드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 거기에 회당이 있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회당이 등장하는 것은 프톨레미 3세(246-221 BC)이다. 랍비 전승은 심지어 예루살렘에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아주 과장된 표현이다(J. J. Scott Jr, *Jewish Background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139-140)

10) B. J. Lee, *The Galilean Jewishness of Jesus*, 57.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왔다’(마 5:17)는 새로운 열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서 우리는 예수와 초기 그리스도교의 특징을 유대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뿐이다. 참고, N. Solomon, 『유대교란 무엇인가?』, 최창모 역(서울: 동문선, 1999), 35; *Judaism*.

11) *Ibid.*, 41-42. 노먼 솔로몬에 의하면, 이러한 불일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서로 갈등하는 집단으로 갈라서게 된 것이며,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종교로 가게 된 것은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후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단지 자신의 죄를 벌하신 것으로 해석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에게 부과하는 특별한 세금인 피스쿠스 유다이쿠스(fiscus Judaicus)를 부과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유대교로부터 떠나 로마에 충성하게 됨으로써 두 종교의 분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Ibid.*, 43-44).

12) B. J. Lee, *The Galilean Jewishness of Jesus*, 58. 그러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었다. 예를 들면, 아가서에 대한 주석에서 오리겐은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고 그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본 반면에, 요한난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을 비유” 한 것이라고 보았다(N. Solomon, 『유대교란 무엇인가?』, 46).

13) T. Holmén, “An Introduction to the Continuum Approach”, Tom Holmén, ed., *Jesus from Judaism to Christianity: Continuum Approaches to the Historical Jesus* (New York: T&T Clark, 2007), 1-2.

중심으로 시작된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남긴 지혜문학 장르인 Q¹⁵)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4복음서가 예수를 선포된 자로 묘사하는 것과 달리 Q에서는 예수께서 항상 선포하는 자로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Q는 4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유대적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였다.¹⁶⁾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 대한 전형적인 유대적 표현 방식이다.¹⁷⁾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적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새로운 메시아로 이해하는 흐름은 Q로부터 시작하여 마태복음을 거쳐서 이레네우스에 이르기까지 초기 그리스도교의 정통성을 유대성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¹⁸⁾ 바로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유대성은 역사적 예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유대적 정통성은 2세기에 플라톤의 이원론적 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영지주의 교단을 이단으로 거부하면서 나그 함마디 문서에 있던 모든 콥트 문서들을 경전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정통교회의 결단은 유대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당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신약성서 경전화 작업에 있어서 유대적 전통은 사도성 못지않게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이단과 정통 논쟁에 있어서 유대성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나그 함마디 문서가 이단 문서로 거부되고 신약성서 27권이 경전으로 채택되는 상황에서 과연 사도성과 유대성의 개념은 텍스투스 레캡투스로 간주되었는가? 신약성서에서 *καὶ νόμῳ*는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우리말 성서에서 정경이라는 의미보다는 범위나 규범, 혹은 규례로 번역되어 있다.

14) N. Solomon, 『유대교란 무엇인가?』, 37. 노먼 솔로몬에 의하면, 전통적인 유대인은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중요한 요소를 차용하여 예수께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며,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Ibid.). 그러나 그는 엄밀하게 말해서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두 ‘히브리 성경’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유대교의 토대가 되는 탈무드가 그리스도교의 텍스트인 복음서보다 더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순서로 볼 때 ‘말형’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였다(Ibid., 38).

15) Q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인 예수말씀을 뜻하는데, 공관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독일어 Quelle의 첫 글자를 따서 표기한 것이다.

16) B. J. Lee, *The Galilean Jewishness of Jesus*, 18.

17) Ibid., 140-141.

18) É. Massaux, *The Influence of the Gospel of Saint Matthew on Christian Literature before Saint Irenaeus* Book I-III, trans., ed., N. J. Belval (Leuven: Peeters Pres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0); *Influence de l'Évangile de saint Matthieu sur la littérature chrétienne avant saint Irénée*.

고후 10:13 ἡμεῖς δὲ οὐκ εἰς τὰ ἄμετρα καυησόμεθα ἀλλὰ κατὰ τὸ μέτρον τοῦ **κανόνος** οὗ ἐμέρισεν ἡμῖν ὁ θεὸς μέτρον, ἐφικέσθαι ἄχρι καὶ ὑμῶν.

고후 10:15 οὐκ εἰς τὰ ἄμετρα καυχώμενοι ἐν ἄλλοτρίοις κόποις, ἐλπίδα δὲ ἔχοντες ἀύξανομένης τῆς πίστεως ὑμῶν ἐν ὑμῖν μεγαλυθῆναι κατὰ τὸν **κανόνα** ἡμῶν εἰς περιουσίαν

고후 10:16 εἰς τὰ ὑπερέκεινα ὑμῶν εὐαγγελίσασθαι, οὐκ ἐν ἄλλοτρίῳ **κανόνι** εἰς τὰ ἔτοιμα καυχῆσασθαι.

갈 6:16 καὶ ὅσοι τῷ **κανόνι** τούτῳ στοιχήσουσιν, εἰρήνη ἐπ' αὐτοὺς καὶ ἔλεος καὶ ἐπὶ τὸν Ἰσραὴλ τοῦ θεοῦ.

원래 **κανών**은 어떤 것을 측정하는 수단을 가리키는데, 이를 테면 수치를 결정하는 줄자나 표준을 뜻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κανών**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참고, 클레멘트 1서 7:2)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고린도후서 10장 13, 15-16절에서는 어떤 행동을 위한 방향이나 형식을 뜻하는 것으로 심화되고 있다(참고, 클레멘트 1서 1:3).¹⁹⁾ 이러한 의미가 2세기의 초기 그리스도교에 의해 진리를 나타내는 표준으로 사용되어 ‘신앙의 규범(rule of faith)’이란 뜻을 가지게 되면서, **κανών**은 경전의 목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⁰⁾

특히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복음의 중요성을 말하는데(갈 6:11-14), 거기서 바울은 율법적인 할례와의 관계에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갈 6:15)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갈 6:16)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일련의 구절 속에서 우리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여받게 된 사도적 위치 곧 그의 사도성과 동시에 율법을 재해석하면서도 여전히 구약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대적 위치 곧 그의 유대성을 확인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10장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 13장까지 이어진다. 이 문단에서 바울은 소위 자신의 적대자들을 경계하고 있는데 곧 그는 거짓 사도들을 풍자하면서(10:12; 11:21; 12:13) 원래 그들은 고린도교회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10:12-16; 11:4). 이러한 바울의 논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의 사도성에 관한 변증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19)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ition, revised and edited by F. W. Danker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507-508.

20)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508. Cf. RGG³ III, 1116-1122; TRE XVII 1988, 562-570.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13장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는 12장에서 셋째 하늘과 낙원에 관한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 때 절정에 도달한다(12:1-7). 셋째 하늘에 관하여는 당시 유대 문헌에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식을 바울이 따랐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낙원에 관해서도 70인역(LXX)에서 에텐동산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때 아주 의미있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루 퍼져 있던 구약성서의 전통 위에 서있는 유대성에 입각하여 적대자들을 대응해 나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성과 유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바울이 적대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 등장한 아주 구체적인 단어 하나가 바로 *καυών*이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가 2세기에 신약성서 정경 목록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점을 중시할 때, 우리는 초기 교회에서 사도성과 유대성의 원리가 다른 아닌 신약성서를 경전으로 채택하게 하는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원리 곧 *καυών*의 원리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신약성서에 텍스트스 레셉투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신약성서를 경전으로 채택하게 한 원리인 사도성과 유대성의 원리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신약성서의 원문을 확정하는 *καυών*의 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상업적인 광고

불행하게도 원본 그리스어 신약성서는 현존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진 그리스어 신약성서는 사본을 토대로 복원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필사자들이 베낀 수많은 신약성서의 사본들은 비록 많은 이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신약성서는 현대적인 본문비평 방법을 활용한 학자들의 면밀한 비교 분석 작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원본에 가장 가깝게 복원되어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학자들의 본문비평 작업에 의해 등장한 개념이 텍스트스 레셉투스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스 레셉투스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본문비평의 방법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다량으로 판매하기 위한 인쇄업자들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던 용어이다.

텍스트스 레셉투스는 원래 라틴어 *textum receptum*에서 유래한 단어이다.²¹⁾

21) 한국에서 텍스트스 레셉투스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창환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정체(正體)”, 『성경원문연구』 창간호(1997), 11-33.

원래 이 표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 학자는 브루스 메츠거(Bruce Manning Metzger)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624년에 라이덴(Leiden)에서 인쇄업을 하는 엘제비어 형제(B. Elzevir와 A. Elzevir)가 작고 편리한 그리스어 성서를 출판하였는데, 그 성서의 본문이 주로 1565년에 인쇄된 베자 성서라는 작은 판본에서 취한 것이다. 1633년에 나온 제2판²²⁾의 서문은 ‘[독자가] 이제 모두에 의해서 수용된 본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 것도 변경하거나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²³⁾라고 자랑을 하였다.²⁴⁾

위에서 메츠거가 언급한 바와 같이 출판업자들이 원래 12세기와 13세기의 사본을 토대로 집대성하여 ‘에라스무스 텍스트로 알려진 것’²⁵⁾을 1633년에 다시 출판하면서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광고하기 위하여 사용한 라틴어는 *textum receptum*이었다. 그런데 *textum receptum*는 후에 주격 형태인 *textus receptus*로 정착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한글로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표기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 ‘공인본문’ 혹은 ‘수용본문’(text received)이라는 뜻이다.²⁶⁾ 이 단어가 처음부터 그리스어 신약성서에 대하여 출판 당시에 수용된 본문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지만,²⁷⁾ 이미 출판업자들에 의해 그리스어 성서를 광

-
- 22) 제1판은 1624년에 나왔는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2판이 발행된 것을 보면 엘제비어 형제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는 그 출판과 더불어서 반포까지 모든 일이 호응을 얻으면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3)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 in quo nihil immutatum aut corruptum damus.*” 이 라틴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에 관하여는 박창환 “‘텍스투스 레셉투스’의 정체(正體)”, 14와 메츠거, 『사본학』, 강유증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9), 132를 참고하라. 필자는 라틴어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원문의 뜻이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였다.
- 24) B.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106; 메츠거, 『사본학』, 132.
- 25)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2nd editio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E. F. Rhodes, trans. (Grand Rapids: Eerdmans; Leiden: E. J. Brill, 1989), 6.
- 26) 텍스투스 레셉투스의 의미에 관해 박창환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말은 라틴(Latin)어 술어이다. ‘텍스투스’(textus)는 원래 망(網 web)을 의미하고, 따라서 직물(織物), 구조물(構造物)을 기리킨다.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생각이 얽히고 짜여 있는 글을 가리키게 됐다. ‘레셉투스’(receptus)는 레시삐오(recipio)라는 동사의 수동분사로서 ‘받아진’ ‘수락된’ ‘용납된’(accepted, received)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그 두 단어를 합하면 ‘공인된 글’(Received Text)이라는 말이 될 것이고 좀더 풀어서 ‘공인된 본문’이란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박창환, “‘텍스투스 레셉투스’의 정체(正體)”, 14.
- 27) F. Kenyon, *Our Bible and the Ancient Manuscripts* (London: Eyre & Spottiewoode, 1948),

고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이 단어는 처음부터 상업적인 용도를 이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스 레셉투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용된 본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엘제비어 시대에 출판업자로부터 수용된 본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²⁸⁾

최근 한국에서 한국성경공회가 발족되어 지금도 여전히 KJV와 더불어 ESV와 NIV를 참조하여 우리말 번역인 『바른성경』(2008)을 출판하면서 신약성서의 번역대본으로 ‘텍스트스 레셉투스(공인본문)’을 사용하였다고 대대적으로 교계 신문에 광고를 하였는데, 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상업적인 의미로 텍스트스 레셉투스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의미가 처음에는 상업적인 용도인 광고로 사용되다가 점차 수용된 사본을 사용한 공인 본문이라는 의미로 발전하여, 그것을 번역한 공인역본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되면서 오늘 한국의 말씀보존학회에서는 ‘표준원문’이란 의미로 KJV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될 정도이다.²⁹⁾

그러나 텍스트스 레셉투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19세기에 칼 라흐만(Karl Rachmann, 1793-1851)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의 도전은 1830년에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후대에 채택된 텍스트스 레셉투스를 버리고, 4세기 초의 본문으로 돌아가자!³⁰⁾

이러한 노력은 다음세대인 티센도르프(Constantin von Tischendorf, 1815-1874)에 의해 성취되었다. 그의 가장 눈부신 업적은 시내산에 있는 성 카타린 수도원에서 4세기경에 필사된 시내산 사본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는 시내산 사본을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Α**로 명기하였는데, 이는 그 사본의 중요성이 다른 어떤 사본보다 앞서고 가장 완벽하고 신뢰할만하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

104.

28) D. A. Carson,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오류』, 송병현 박대영 역(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44; *The King James Version Debate*.

29) 김재근 편저, 『훼손당한 성경: 올바른 한글성경 선택의 길잡이』(서울: 말씀보존학회, 1994), 14, 이러한 내용은 이미 서구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된 주장이기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D. O. Fuller (ed.), *Which Bible?* (Grand Rapids: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70)에 실린 글 중에서 “The Great Text of the King James Version”과 “In Defense of the Textus Receptus”를 참고하라.

30)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11에서 재인용.

다.³¹⁾ 우리는 시내산 사본의 발견으로 과거에 상업적 광고로 활용되었던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사실을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³²⁾ 이제는 더 이상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통해 받은 공인본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17세기에 통용되던 상업적 의미의 표준본문이라는 뜻으로 학계에서 간주되고 있다.³³⁾ 1611년에 발간된 제임스왕역은 12세기에서 15세기까지의 사본을 근거로 한 1516년과 1522년 판본인 에라스무스 그리스어 신약성서³⁴⁾와 1589년과 1598년 판본인 베자 사본³⁵⁾에 의존하여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1633년에 상업적인 광고를 붙여서 텍스트스 레캡투스라고 여기면서 가장 정확한 본문이라고 간주하는 노력에 대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³⁶⁾ 사실상 라흐만(Lachmann)도 자신이 출판한 그리스어 신약성서 제2판(1842-1850)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장 권위가 있는 판본이며 원본에 가장 가깝다는 상업적 광고의 의미로 텍스트스 레캡투스를 사용하였다.³⁷⁾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NTG²⁷⁾(1993)³⁸⁾인 그리스어 신약성서도 사실상 상업적 광고의 의미를 지닌 ‘일종의 현대적 텍스트스 레캡투스’에 지나지 않는다.³⁹⁾

31) KJV만을 텍스트스 레캡투스로 간주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시내산 사본에 대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더미에 버려졌던 것”이라고 혹평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참고, 김재근 편저, 『훼손당한 성경: 올바른 한글성경 선택의 길잡이』, 17. 시내산에 있는 성 카타린 수도원을 가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본들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채로 지하 도서관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2)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19.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독자영감을 주장하는 정통주의자들이 알고 있던 텍스트스 레캡투스는 19세기에 티넨도르프에 의해 발견된 초기 사본인 시내산 사본 이전의 헬라어신약성서이므로 본문의 권위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참고, K. Aland, “The Text of the Church”, *Trinity Journal*, Fall (1987), 131.

33) P. D. Wegner, *The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337.

34) N. L. Geisler and W. E. Nix, 『성경의 유래』, 이송오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277; *From God to Us: How We Got Our Bible*. E. F. Hills, 『킹제임스 성경 변호』, 정동수 권승천 역(인천: 그리스도 예수안에, 2006), 196;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

35) T. Holland,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정동수 역(인천: 그리스도 예수안에, 2006), 4 n. 5; *Crowned with Glory: The Bible from Ancient Text to Authorized Version*.

36) P. D. Wegner, *The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399; 박창환,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정체(正體)”, 31.

37) E. J. Epp, *Perspectives o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Collected Essays, 1962-2004* Supplements to *Novum Testamentum* 116 (Leiden; Boston: Brill, 2005), 145.

38) B. Aland, “신약 본문 연구, 그 방법과 목표”, 우택주 역, 『좀 쉽게 말해주시오: 본문 비평과 성서 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 기념 제1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79; “New Testament Textual Research, Its Method and Its Goals”.

39) E. J. Epp, *Perspectives o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438. 그는 모든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출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출판한 책에 대하여 권위가 있는 성서라는 뜻으로 텍스트스 레캡투스라고 명명하는 것이 아주 오래되고 일반화된 현상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여러 군

4.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상호본문성

엘든 엡(E. J. Epp)은 평생 동안 본문비평 연구에만 매달린 학자로서 2000년 4월에 사우스웨스턴 침례교신학교에서 모인 세계본문비평학회에서 대표 연설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논문⁴⁰⁾을 발표하였다. 이 연설을 통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선택과 결정’이라는 다섯 가지의 원리들을 제안하였다.

- 이문 중에서 선택하기보다 우선권을 결정하기.
- 사본 중에서 선택하기보다 그룹을 결정하기.
- 비평본 중에서 선택하기보다 타협점을 결정하기.
- 컨텍스트를 선택하기보다 영향력을 결정하기.
- 목적과 방향을 선택하기보다 의미와 접근 방법을 결정하기.⁴¹⁾

엡은 이상의 다섯 가지 원리가 단순히 본문비평을 기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과 학문’⁴²⁾의 차원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마지막에 언급된 ‘목적과 방향을 선택하기보다 의미와 접근 방법을 결정하는 원리’는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원본’(the original text)⁴³⁾을 찾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사실상 2000년 동안 전세계의 모든 그리스도 교회는 저마다 원본 신약성서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본문비평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원본 신약성서를 찾아가는 의미와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엡은 본문비평적인 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내러티브 비평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제안하고 있다.⁴⁴⁾

이상으로 엡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원본을 찾는 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학자들이 한 가지로 중시하였던 본문비평적인 작업에

데에서 지적하고 있다. 참고, Ibid., 62, 85, 130, 144-145, 151, 230-236, 244, 290-295, 324-325, 438-439, 445, 451-452, 458, 646, 668, 675; E. J. Epp, “Ancient Texts and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2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7; *TRE* XXXIII 2002, 160.

40) E. J. Epp, “Issues i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Moving from the Nineteenth Century to the Twenty-First Century”, *Perspectives o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641-697.

41) E. J. Epp, *Perspectives o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643-644.

42) Ibid.

43) Ibid., 691-696.

44) Ibid., 736-739. 엡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새로운 방법론을 ‘내러티브 본문비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736).

더하여 내러티브 비평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법론을 ‘내러티브 본문비평’⁴⁵⁾이라고 부르고자 하며,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에 도움을 받아서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준비할 수 있다. 내러티브 본문비평은 그동안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원본을 찾는 작업에서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내러티브 본문비평이란 무엇인가? 신약성서를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와 구성요건을 중시하여 연구하는 것이 내러티브 비평이고, 신약성서의 본문을 내러티브의 틀 속에서 이해하여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내러티브 비평과 본문비평의 상호관계 속에서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내러티브 본문비평이다. 21세기에 새로운 그리스어 신약성서인 *Novum Testamentum Greece*의 새로운 판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본으로 한 새로운 우리말 번역 신약성서가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에 맞게 출판되기를 희망하면서, 필자는 내러티브 본문비평에 덧붙여서 상호본문성의 원리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학자들은 신약성서의 본문에서 구약성서의 본문을 연구하는 방법을 일찌감치 터득하여 적용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상호본문성이라고 부른다. 구약성서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였던 신약성서의 기자들의 방법을 가리켜서 정경비평 학자들(예를 들면, B. S. Childs와 J. A. Sanders)⁴⁶⁾은 본문상호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의 본문을 확정하는 데 구약성서를 참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마가복음 2장 26절에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지만, 사실 구약성서에는 ‘아히멜렉’으로 되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⁴⁷⁾ 어느 것 하나 원본을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급할 수 있는 상호본문성의 방법들로는 (1) 직접 혹은 간접 인용구 - 구약이 신약에 인용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2) 암시 - 구약이 신약에 암시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3) 반영 - 구약이 신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45) 사실 이 용어는 파커(D. C. Parker)가 *JTS* 45 (1994): 704에서 어만(B. Ehrman)이 1993년에 출판한 책인 *The Orthodox Corruption of Scripture*란 책을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후에 파커는 이 용어를 그의 후속작인 *The Living Text of the Gosp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특히 주기도(49-74)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75-94)을 연구하면서 이 용어를 다시 사용하였다.

46) B. S. Child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0), 61-82; J. A. Sanders, *Cannon and Community: A Guide to Canonical Critic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47) 신약의 ‘아비아달’과 구약의 ‘아히멜렉’에 관한 난제를 풀기 위한 시도들에 관하여 V. Taylor, 『신약주석 마가복음』, 박수암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4, 195를 참고하라;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London: Macmillan & Co, 1952), 217.

방법, (4) 석의 -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5) 짜깁기 - 신약이 구약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6) 유사구조 - 신약 이야기가 구약과 유사한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등을 가지고 마가복음 2장 26절에 나타나 있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할 수 있다.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상호본문성은 주어진 본문을 생산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성서 기자들이 다른 본문의 지식에 의존하는 모든 방식들을 포괄하기 위한 방법론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지금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방법인 상호본문성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복음 2장 23-28절의 안식일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예수께서 언급한 인물은 아히멜렉이라는 사실에 도달할 수 있다. 비록 모든 그리스어 사본들이 예외 없이 아비아달을 언급하고 있을지라도,⁴⁸⁾ 본문에 대한 내러티브 읽기가 구약성서 본문과의 상호본문성에 입각하여 이해한다면 아히멜렉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예를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마태복음 27장 9-10절도 모든 그리스어 사본들이 예외 없이 예레미야로 언급되고 있다.⁴⁹⁾ 이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⁵⁰⁾ 어느 것 하나도 원본을 확정하는 데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본문에 대한 내러티브 읽기를 구약성서 본문과의 상호본문성에 입각하여 이해한다면 인용된 구절의 예언자 이름은 스가랴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9-10절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절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 11장 12-13절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단지 마태복음에서 예레미야라는 이름만 이 이야기에 연관이 되어 있을 뿐이다. 곧 예레미야 18장 1-3절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와 예레미야 32장 6-10절에 나오는 밭을 사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 9-10절에 암시적으로 언급될 뿐이므로,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스가랴 11장 12-13절이 분명하다.

카슨(D.A. Carson)은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지적한바 있다.⁵¹⁾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신약성서 기자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

48) R. Swanson (ed), *New Testament Greek Manuscripts: Variant Readings Arranged in Horizontal Lines against Codex Vaticanus-Mar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Pasadena: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95), 34.

49) *Ibid.*, 277.

50) D. R. A. Hare, *Matthew,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3), 314; W. D. Davies and D. C. Allison, *Matthew XIX-XXVIII*, vol.3,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97), 568-569;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466-467.

51) D. A. Carson, 『성경 해석의 오류』, 박대영 역(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Exegetical Fallacies*, 2nd ed..

에 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⁵²⁾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참으로 오랜 시간동안 사건과 해석과 전승⁵³⁾과 기록과 보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⁵⁴⁾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원본을 찾는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작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과거와는 다른 방법인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상호본문성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방법은 현존하는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을 찾아나서는 방향 위에 서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신약성서 원본을 아직 완전하게 복원하지 못하였다.⁵⁵⁾ 사본의 오류⁵⁶⁾뿐만 아니라 성서 기자의 오류 가능성⁵⁷⁾도 바로잡고 완전한 신약성서 원문을 복원하기 위해 우리는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상호본문성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에 의거하여 우리는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실체를 확립하여야 한다.

5. 결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⁵⁸⁾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은 모두 성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대한 행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본과 역본을 비교 대조하면서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원본을 복원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도서 기자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전 12:12)고 말하였다. 이것은 전도서 기자가 인간이 행하는 수고가 너무나도 안타

52) 신약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의미가 있는 책이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신약성서 해석의 기술을 제안하고 있는 책이 G. D. Fee and D. Stuart,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 박대영 역(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8)이다;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3rd edition.

53) P. Stuhlmacher, *Vom Verstehen des Neuen Testaments: Eine Hermeneutik*, 45.

54) W. M. Schniedewind, 『성경은 어떻게 책이 되었을까』, 박정연 역(서울: 에코 리브르, 2006); *How the Bible Became a Book: The Textualization of Ancient Israel*.

55) B. Aland, “New Testament Textual Research, Its Method and Its Goals”, 87.

56)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23-28.

57) *Ibid.*, 369-370.

58) J. W. Burgon,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Seven Sermons Preached before the University of Oxford-with Preliminary Remarks* (Oxford; London: J. H. and Jas. Parker, 1861), lxxvi-lxxvii.

까워서 한 말이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원본이 발견되지 않는 한, 우리가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21세기에 사용될 신약성서를 복원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도 결코 끝이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4세기에 이르러서 신약성서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되도록 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오늘날의 텍스트스 레셉투스에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사도성과 유대성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텍스트스 레셉투스란 개념이 17세기에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발간하던 출판업자에 의한 상업적인 광고로부터 시작하여 본문비평의 중요 원리로 자리를 잡기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더듬어 보면서, 21세기에 새로운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안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인 내러티브 본문비평을 도입하여 상호본문성의 원리를 통해 신약성서 원본을 확립하는 길을 모색할 것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그리스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eece)를 복원하고 더 나아가서 복원된 신약성서를 번역하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Keywords)

21세기 그리스어 신약성서, 공인본문/수용본문, 내러티브 본문비평, 상호본문성, 텍스트스 레셉투스, 그리스어 신약성서.

twenty first century Greek New Testament, received text, narrative textual criticism, intertextuality, *Textus Receptus*, Novum Testamentum Greece.

* 참고문헌(References)

- B. Aland, “New Testament Textual Research, Its Method and Its Goals”, 87.
- B. Aland, “신약 본문 연구, 그 방법과 목표”, 우택주 역, 『좀 쉽게 말해주시오: 본문 비평과 성서 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 기념 제1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79; “New Testament Textual Research, Its Method and Its Goals”.
- B. J. Lee, *The Galilean Jewishness of Jesus: Retrieving the Jewish Origins of Christianity* (New York: Paulist Press, 1988), 17.
- B.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106; 메츠거, 『사본학』, 132.
- B. S. Child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0), 61-82;
- D. A. Carson, 『성경 해석의 오류』, 박대영 역(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Exegetical Fallacies*, 2nd ed..
- D. A. Carson,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오류』, 송병현 박대영 역(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44; *The King James Version Debate*.
- D. O. Fuller (ed.), “The Great Text of the King James Version”, “In Defense of the Textus Receptus”, *Which Bible?* (Grand Rapids: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70)
- D. R. A. Hare, *Matthew,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3), 314;
- E. F. Hills, 『킹제임스 성경 변호』, 정동수 권승천 역(인천: 그리스도 예수안애, 2006), 196;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
- E. J. Epp, “Ancient Texts and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2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7; *TRE XXXIII* 2002, 160.
- E. J. Epp, “Issues i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Moving from the Nineteenth Century to the Twenty-First Century”, *Perspectives o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641-697.
- E. J. Epp, *Perspectives o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Collected Essays, 1962-2004* Supplements to Novum Testamentum 116 (Leiden; Boston: Brill, 2005), 145.
- F. Kenyon, *Our Bible and the Ancient Manuscripts* (London: Eyre & Spottiewoode, 1948), 104.
- G. C. Quispel, *Makarius: das Thomasevangelium, und das Lied von der Perle* (Leiden: E. J. Brill, 1967), 7-8.

- J. A. Sanders, *Cannon and Community: A Guide to Canonical Critic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J. J. Scott Jr, *Jewish Background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139-140
- J. M. Robinson, “The Study of the Historical Jesus after Nag Hammadi”, *Semeia* 44 (1988), 48.
- J. W. Burgon,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Seven Sermons Preached before the University of Oxford-with Preliminary Remarks* (Oxford; London: J. H. and Jas. Parker, 1861), lxxvi- lxxvii.
-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2nd editio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E. F. Rhodes, trans. (Grand Rapids: Eerdmans; Leiden: E. J. Brill, 1989), 6.
- K. Aland, “The Text of the Church”, *Trinity Journal*, Fall (1987), 131.
- N. L. Geisler and W. E. Nix, 『성경의 유래』, 이송오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277; *From God to Us: How We Got Our Bible*.
- N. Solomon, 『유대교란 무엇인가?』, 최창모 역(서울: 동문선, 1999), 35; *Judaism*.
- P. D. Wegner, *The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337.
- P. J. Achtemeier, J. B. Green, and M. M. Thompson, 『현대적인 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신약성서개론』, 소기천, 윤철원, 이달 번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Introducing the New Testament: Its Literature and Theology*, 726.
- P. Stuhlmacher, *Vom Verstehen des Neuen Testaments: Eine Hermeneutik*, 45.
- P. Stuhlmacher, 『신약성서 해석학』, 전경연 강한표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38, 41; *Vom Verstehen des Neuen Testaments: Eine Hermeneutik*.
- R. M. Grant and D. N. Freedman, 『예수말씀 복음서 Q 연구 개론: 잃어버린 지혜문학 장르의 전승 자료』, 소기천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79-184; *The Secret Sayings of Jesus* (Garden City: Doubleday, 1960), 71;
- R. Swanson (ed), *New Testament Greek Manuscripts: Variant Readings Arranged in Horizontal Lines against Codex Vaticanus-Mar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Pasadena: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95), 34.
- T. Holland,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정동수 역(인천: 그리스도 예수안에, 2006), 4 n. 5; *Crowned with Glory: The Bible from Ancient Text to Authorized Version*.
- T. Holmén, “An Introduction to the Continuum Approach”, Tom Holmén, ed., *Jesus from Judaism to Christianity: Continuum Approaches to the Historical*

Jesus (New York: T&T Clark, 2007), 1-2.

- V. Taylor, 『신약주석 마가복음』, 박수암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London: Macmillan & Co, 1952),
-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ition, revised and edited by F. W. Danker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507-508.
- W. D. Davies and D. C. Allison, *Matthew XIX-XXVIII*, vol.3,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97), 568-569;
- W. M. Schniedewind, 『성경은 어떻게 책이 되었을까』, 박정연 역(서울: 에코 리브르, 2006); *How the Bible Became a Book: The Textualization of Ancient Israel*.
- É. Massaux, *The Influence of the Gospel of Saint Matthew on Christian Literature before Saint Irenaeus* Book I-III, trans., ed., N. J. Belval (Leuven: Peeters Pres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0); *Influence de l'Évangile de saint Matthieu sur la littérature chrétienne avant saint Irénée*.
- 김재근 편저, 『훼손당한 성경: 올바른 한글성경 선택의 길잡이』(서울: 말씀보존학회, 1994),
- 메츠거, 『사본학』, 강유증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9),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23-28.
- 박창환,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정체(正體)”, 『성경원문연구』 창간호(1997), 11-33.
- 소기천, 『예수말씀의 전승 궤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41;
-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466-467.

<Abstract>

The Various Meanings of *Textus Receptus* and Our Tasks for New Reconstruction of Twenty First Century *Novum Testamentum Greece*

Prof. Ky-Chun So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investigates briefly the various meanings of *Textus Receptus* from the old era of *Textus Receptus* to the current period of textual criticism in order to suggest new methodologies like narrative textual criticism and intertextuality.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or earlier, analyses of manuscript relationship have been based on a comparison of a number of agreements that two or more manuscripts shared in their variation from an external standard, usually the *Textus Receptus*, although Lachmann made the decisive break with the *Textus Receptus* and, as is well know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ttempted to overcome its long-standing reliance on the *Textus Receptus*. And the standard of the *Textus Receptus* was the apostleship and Jewishness of the Bible formation era and the received text of the sixteenth century, thus effecting a decisive break with the *Textus Receptus*, until then the standard critical text of the New Testament.

For this reason, this paper is interested in the new methodology of “narrative textual criticism” in order to reconstruct new *Novum Testamentum Greece* of the twentieth century where it permits textual variants, often in their very multiplicity and quite apart from any search for the original text, in which the often simplistically understood term has been fragmented by the realities of how our New Testament writings were formed and transmitted, to tell their own stories. Hence this paper raises some poignant questions about the search for a single original text. Then, now the original text is frequently placed within question mark, thereby cautioning against undue optimism. At this moment,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Bible Society must reconstruct new *Novum Testamentum Greece* on the basis of narrative textual criticism and intertextuality, and translate it into Korean.